

미국 마감 상황

2008.11.14

이승준 02) 2009-7088
leesj@leading.co.kr

13일 뉴욕증시는 기업실적 전망 악화 등 미국 거시경제 상황이 나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는 심리로 인하여 저가매수가 유입되며 폭등.

이날 블루칩 중심의 다우지수는 전일대비 552.59p(6.67%) 급등한 8,835.25을 기록. GM이 33.1% 오르며 급등세를 주도.

S&P500 지수는 58.99p(6.92%) 오른 911.29에 마감.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97.49p(6.50%) 오른 1,596.70에 장을 마감.

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전주대비 3만2천명이 급증한 51만6천명을 기록하며 7년래 최악의 상황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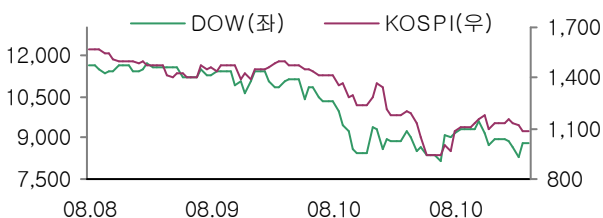
세계 최대 유통업체인 월마트는 3분기 수익이 31억4천만달러로 전년동기 10% 증가했다고 발표. 그러나 올해 수익 전망치는 종전의 3.43~3.50달러에서 3.42~3.46달러로 하향 조정하며 소비위축 우려를 증폭.

증시는 경기후퇴 우려로 장중 8,000선이 붕괴되기도 하였으나 저가매수세로 인하여 장 후반 급등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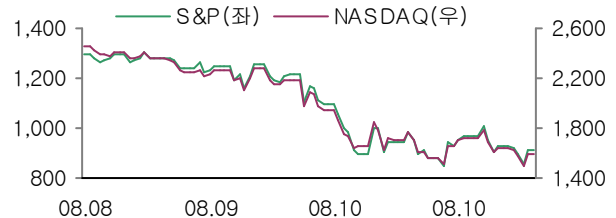
이날 국제 유가가 4% 가까이 오르며 엑슨모빌이 9.4% 상승하는 등 에너지 업종이 강세. 서부텍사스산원유(WTI)는 뉴욕증시가 강세를 보이자 전일보다 2.08달러(3.7%)오른 배럴당 58.24달러에 마감.

미국 시장 주요 지표(pt, %)

지수	종가	1일	5일	10일	1개월	3개월	12개월
DOW(좌)	8,835.25	6.67	1.60	-3.76	-5.11	-23.39	-33.22
S&P(좌)	911.29	6.92	0.71	-4.49	-8.69	-29.13	-38.03
NASDAQ(우)	1,596.70	6.50	-0.75	-5.99	-10.25	-34.25	-39.62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

자료: Bloomberg, 리딩투자증권

- * 상기 게재된 내용은 단순한 정보전달로서, 이와 관련된 최종 의사결정은 이용자 개인의 책임하에 하시기 바랍니다.
- * 본 자료는 발간일 이전 사전 자료로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* 본 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